

#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소상공인 90% “만족”

### 광산구, 수출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중기 관계자 만족도 조사 든든한 동반자 인식 지역 주도 경제지원 성공 모델로 정착 평가

광주 광산구 관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를 이용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업주치의센터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지역 경제지원의 성공 모델로 정착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의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18년 12월 출범한 센터의 2년 성과를 평가하고, 중점 컨설팅 분야 등의 개선점을 센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광산구는 센터의 컨설팅과 정책 연계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기업인 등 102명의 의견을 전화 설문 등을 통해 ‘만족도’와 ‘수요조사’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에서는 답변자 중 90.2%가 센터의 경영·자금·기술·마케팅·수출

컨설팅에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다. 특히 수출 부문 컨설팅은 100%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기술 94%, 경영 92%, 판로 90% 순이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부문의 복합적인 컨설팅을 받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향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강화해야 할 컨설팅 부문으로는 43%가 자금을 꼽았고, 31%는 판로, 14%는 경영을 언급해 향후 자금과 판로에 방점을 둔 컨설팅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센터 기업지원프로그램에는 97.7%가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는데, 이중 ‘매우 만족’은 62.6%에 달했다.

프로그램 중 ‘태마 상담’과 ‘전문가 종합솔루션’, ‘지식재산 관리와 지원’, ‘우체국쇼핑몰 광산브랜드관 입점 지원’ 등이 인기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 79%는 전문가 종합솔루션, 75%는 지식재산 관리와 지원, 71%는 쇼핑몰 입점에 각각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센터 건의사항 항목에서는 참가자 73%가 대출 조건 완화와 정책자금 연계 강화 등 ‘자금지원 확



광주 광산구가 관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개소식 모습.

대’를 꼽았다. 이는 코로나19로 가게·기업의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평동산단에서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유프랜드의 류영근 대표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그동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센터의 도움으로 특히 4건을 출원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광산구는 이번 기업주치의센터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자금·특허·창업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내년 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 지역경제 주체들의 더 높은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기업주치의센터를 통한 경제 정책이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경제 지원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이번 기업주치의센터의 만족도 조사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광주시, 내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올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1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으로 받는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이며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선정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제공해 엔진 개조 지원을 받은 차량은 제외한다.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에 6개월 이상 차량을 등록·소유하고 성능이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노후 경유차는 3000대, LPG 화물차는 2000대다. 시는 올해 상반기 3514대를 포함해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 9168대를 지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

#### 광주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광주시가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주차장법 제6조 개정안(일명 ‘하중이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사진 주차장 시설 개선은 2017년 4월 서울대공원 경사진 주차장의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지난해 3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사진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경사진 주차장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전통시장 상인들, 릴레이 나눔 나서

#### 송정매일·1913송정역·월곡시장 상인회, 코로나19 극복에 힘 실어

광주 광산구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실는 나눔에 나섰다.

송정매일시장상인회(회장 박성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광산구보건소에 100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전달했다.

같은 날 1913송정역시장상인회(회장 범웅)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부 감소가 우려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보람의집’에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월곡시장상인회(회장 정미

경)가 코로나19 방역에 여념이 없는 광산구보건소에 50인분의 육개장과 밀반찬 등을 보냈다.

박성순 송정매일시장 상인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구청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든든했고 도울 방법을 상인회원들과 고민하다가 나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신흥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단은 지난 24일 국제로타리의 후원을 받아 코로나19 사태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가정 100세대에 1주일 분량의 밀반찬을 전하는 ‘사랑의 찬 꾸러미 배달사업’을 실시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신흥동 명예복지공무원단, 홀몸 어르신 가정에 반찬 배달

광주 광산구 신흥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단이 지난 24일 국제로타리의 후원을 받아 코로나19 사태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가정 100세대에 1주일 분량의 밀반찬을 전하는 ‘사랑의 찬 꾸러미 배달사업’을 실시했다.

두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리 어르신 가정에 전화를 한 다음, 약속한 시간에 집 앞에 반찬 꾸러미를 놓고 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반찬을 전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 시민 힘내세요”... 전국에서 기부 잇따라

#### 양주시 등 민간단체 마스크 등 기탁

광주시는 지난 28일 광주시청에서 굿피플인터내셔널,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코로나19 기부 물품 기탁식을 열었다.

국제구호 민간단체인 굿피플은 다른 지역 사회적기업인 비타민엔젤스·고려진공안전·블루인더스·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기부한 비타민, 마스크 등을 기탁했다.

비타민엔젤스는 비타민 3500개, 고려진공안전

은 마스크 1만장, 블루인더스는 마스크 3000장,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마스크 1만장을 각각 기부했다. 광주변호사회는 회원 134명이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활동에 쓰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따뜻한 마음에 더욱 힘을 얻어 광주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기버스 27대·수소버스 6대 광주시, 연말까지 추가 도입

광주시는 “연말까지 전기 시내버스 27대와 수소 시내버스 6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기버스 10대, 이달 9대를 도입·운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기버스 52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과 연계해 장등·월남공영·도산동 차고지에 9개의 충전기를 신설하고 첨단공영 차고지에 충전기 2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32대의 전기버스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아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